

‘국회의장상’ 발레 정연재 양

제 58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수상자 2인

‘문광부장관상’ 바이올린 윤지은 양



12세 발레 본격 입문...홈스쿨링하며 연습 매진

“독일 유학가서 최고 되어 올게요”

올해 8월 독일로 발레 유학을 떠나는 정연재(17)양은 큰 선물을 받았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58회 호남예술제에서 발레 독무 부문 최고상을 받은 정양은 국회의장상까지 함께 받아 기쁨이 두배였다. “지금까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듯해요. 앞으로 독일에 가서도 더 열심히 해야죠.” 유치원 때부터 취미로 발레를 시작한 정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다. 동여여중에 다니며 독무 급상, 군무 최고상 등을 받았던 정양은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김혜식씨가 단장을 맡고 있는 코리아슈발레스타즈에서 활동하는 정양은 발레단 선배들과 스카우트 모자이크에 나섰다. 아쉽게도 순위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장학금 혜택을 받게 돼 독일에서 최소 3년간 체계적인 발레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거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아요.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언어가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 선생님들이 제가 습득력이 빠르다고 하시는데 독일 가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날 때마다 발레단의 공연을 자주 보는 정양은 최근에 관람한 국립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인상적인 작품으로 꼽았다. “처음으로 접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정말 감명깊고, 어떤 장면에서는 소름이 돋았어요. 나중에 나도 꼭 저 작품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오는 8월19일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세미 파이널을 앞두고 있는 정양은 “오랫동안 춤 추는 무용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머니는 바이올린·삼촌은 트롬본 ‘음악 가족’

“연주가·교수 두토끼 잡을래요”

지난해 아깝게 금상에 머물렀던 윤지은(17·광주에 1년)양은 제58회 호남예술제에서 바이올린 부문 최고상과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윤 양이 바이올린을 시작한 건 6살 때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얼마 서화옥씨의 권유였다. 삼촌 역시 시향 트롬본 연주자인 서용일씨로 항상 음악과 친숙했다. “엄마가 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바이올린과 친근했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재능이 있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좀 아쉬웠던 적도 있었지만 연주하는 게 즐거워요.” 윤양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모차르트. 이번 경연에서는 자유곡으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협주곡’ 1악장을 연주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밝고 경쾌하고 재미있어서 좋아요. 이번에 경연을 준비하면서 시벨리우스 곡을 연습했는데 조금은 어두운 듯하지만 깊이가 있는 곡이라 저에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선생님들에게 왼손 테크닉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반면, 연주할 때 너무 힘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받아요. 제가 고쳐야 할 점이죠.” 윤양은 꿈이 많다. 연주자도 되고 싶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도 되고 싶다. 열심히 공부해 우선 목표로 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고 싶다는 윤양은 미국 등으로 유학을 떠나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혜진-기성용 “우리 결혼 했어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배우 한혜진(32)과 축구선수 기성용(24·스완지 시티)이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기성용은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한혜진 역시 “태어나서 가장 떨리는 날이자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멋진 신랑과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열심히 내조 잘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혜진과 기성용은 지난 2011년 6월 베트남에서 열린 자선축구 대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오다 지난 1월부터 교제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혼인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다. /연희뉴스

아버지에 간 이식 고3 치료비 모금 나선 학교

광주고 김연수 군

“부모님이 주신 몸의 일부를 다시 드리는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병원 생활을 하며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3 수험생이 급성 독성감염으로 쓰러진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준 감동을 주고 있다. 1일 광주고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김연수 군이 지난달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김 군의 아버지는 지난 5월 급성 독성감염으로 갑자기 쓰러져 간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 군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지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간 이식을 결심하고 수술대에 올라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김 군은 이 같은 사실을 학교와 친구들에게 숨겼지만 수술을 하면서 결실하게 됐고, 6개월 이상 회복기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알려졌다. 특히 8000만원이나 되는 수술비와 치료비 마련이 어려워 집까지



김종근(맨 왼쪽) 교장이 아버지께 간 이식을 한 김연수 군과 그의 어머니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고 제공>

움기게 됐다.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학생회와 교직원들이 성금 모금에 나섰다. 학생회에서 가정에 호소문을 보내 학부모들도 동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도 뜻을 함께 했다. 성금을 전달한 김종근 교장은 “학생의 효행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를 격려하고 보람은 과정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라며 “고3인 만큼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에서도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디에스중공업 김성길 대표 전남도지사 표창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일 전남도청에서 지역의 기업유치에 공헌한 영암 디에스중공업(주) 김성길(47·사진 오른쪽) 사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 사장을 비롯해 아이엠펀셀 송찬근 생산본부장, (주)신화테크 김지영 대표이사 등 5명의 기업 대표가 상을 받았다. /오광욱기자 krah@

인사

- ◆신인군 <5급 전보> ▲김재화 종합민원실장 ▲윤창섭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영철 환경공민과장 직무대리 <6급 담당> ▲전창은 친환경농업과 유통담당 ▲김순석 친환경농업과 원예담당 ▲최영학 친환경농업과 식품안전담당 ▲최원상 해양수산과 어업지원담당 ▲이화영 해양수산과 김산연담당(신설) ▲강정태 종합민원실 종합민원담당 ▲김희 종합민원실 수산민원담당 ▲박주홍 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박정남 문화관광과 도서관담당 ▲박은용 경제부처와 지역계획담당 ▲정영운 환경공민과 환경시설담당 ▲정명석 환경공민과 철새깃발담당(부서변경) ▲박상규 환경공민과 산불예방담당 ▲김현재 환경공민과 공원녹지담당 ▲맹연숙 주민생활지원실 자활고용담당 ▲김계형 교육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강종량 건설방재과 안전관리담당(신설) ▲김종민 건설방재과 재난방재담당 ▲정상훈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박전용 행정지원실 민간협력담당 ▲김건재 기획홍보실 통계법무담당 ▲최정수 산업단지지원사업소 개발지원담당

대한민국 청자 대상 ‘청자투각오색모란문호’

경기도 이천 김성태씨 문체부장관상

강진군이 최근 주최한 제13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전통부문 일반부에서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김성태(54)씨의 ‘청자투각오색모란문호’가 최고 영예인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장과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대상을 수상한 ‘청자투각오색모란문호’는 큰 호안에 작은 호를 넣어 이중으로 만든 다음 큰 호에 모란문양을 투각했다. 특히 투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색의 안료를 병치·혼합해 바르고 이것을 다시 자유롭게 벗겨낸



제13회 대한민국청자공모전 종합 대상을 수상한 ‘청자투각오색모란문호’.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전남도 공무원들 ‘녹색의 땅 전남’ 단체복 근무



전남도 공무원들이 무더운 여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녹색의 땅 전남’ 이미지를 디자인한 단체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녹색의 땅 전남 티셔츠’는 평상복처럼 디자인해 실내 근무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및 야외활동에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오광욱기자 krah@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욱) 월례회=5일(금)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제2차 정기이사회 결 야우회=6일(토) 오전 9시 지리산 백무동계곡 062-361-2680.

종친회

- ▲광산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 및 교양강좌=4일(목) 오후 6시 30분 대명가든(금남로 5가 신한은행 뒤) 062-525-2708. ▲재광 경주씨종친회 월례회=5일(금) 오후 6시 맛집 한겨레(금남로 카톨릭센터 뒤) 010-6455-6296.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자 062-1366.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회장 강원구) 명사들의 모임=5일(금) 낮 12시 청명회관 062-365-1977. ▲시민 학생의 ‘인성함양’과 ‘성찰과 미래’를 위한 철학박사의 인문학 강좌 “우리 꿈 우리가 키우자”=‘논어’(매주 토요일 오후 4시)·‘대학’(매주 월요일 오후 7시)(5월~12월) 광주YMCA 2층(수준문관·누구나 수강 가능 무료) 010-3625-543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지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레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

- 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시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모집

-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지도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역 및 회원 수시 모집 062-225-6500, 011-610-5575. ▲하남근로자종합복지회 7월~9월 여가운영 프로그램 신청안내=영어회화, 중국어 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스포츠 댄스, 요가 3개월 3만원 062-951-9461. ▲김정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차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스키동호회 설천클럽 회원=광

- 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한미음 장애인지리 생활센터 장애인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약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교실 ‘참고문소리단’ 회원=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10-9886-9775. ▲장애인 체육 동호인=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 후 신청 062-384-5544. ▲놀이때 ‘신명’ 단원=연극·탈춤·

- 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회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는 분 061-373-8865. ▲광주 아버지합창단원=광주 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춤 회원=매

- 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 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부음** ▲배석준씨 별세 승태·용태(전남도 행정부지사)·활(씨이엑티브 감사) 부친상 박준홍씨 병부상=발인 2일(화) 나주 한우리장례식장 2분향소 061-335-4949.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洪연례 님(여/79세) 故 최희영 님(여/58세) 故 김영민 님(남/48)
子/子婦: 한병주, 병호/이윤순 子/子婦: 임병철/조연화, 병수 子: 김정운
女/婿: 한병희/박연석 女: 임수현 男: 임정모 女: 김미라
未亡人: 최해숙
•호 실: 402호 •발 인: 7월 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914
•호 실: 101호 •발 인: 7월 2일 •장 지: 남평선영 •연락처: 227-4385
•호 실: 102호 •발 인: 7월 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